



1<sup>st</sup> Week, August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1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 관광객, 걷기, 민원, 버스
경제·관광	여행, 수출, 일본, 관광객, 주택
지역·사회	버스, 차량, 쓰레기, 폭염, 쿠팡

※ 분석 기간 : 7월 29일~8월 2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0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관광객	- 성산 조개바당 축제
	걷기	- 도민 원탁회의 개최 - 주제는 "걷자! 제주"
	민원	- 대중교통 불편 민원 감소
	버스	- 버스 노선 개편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2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여행	-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운영 - 내손안의제주 스탬프투어 이벤트
	수출	- 제주 상반기 수출 증가
	일본	- 제주와 일본 간 여행 비용 인식 차이
	관광객	- 7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 증가
	주택	- 6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감소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버스	- 버스 노선 개편
	차량	- 제주시 애월읍 차량 전복 사고
	쓰레기	- 구멍갈파래 문제
	폭염	- 폭염 속 전력수요 최고치 경신
	쿠팡	- 쿠팡 노동자 사고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 정부는 2024년 7월 31일 드론 수출 규제를 조정함. 이번 조정은 고정밀 측정 장비를 규제에 추가하며, 일부 소비자용 드론에 대한 임시 규제를 해제함.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산둥성은 2024년 7월 31일 공공 데이터 운영 제품을 칭다오에서 출시함. 이 제품은 공공 교통 데이터와 제3자 사회 데이터를 통합해 버스 충전의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함.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충전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해 전기 요금 비용을 절감하며, 연간 약 160만 위안의 충전 비용 절감 가능
- ✓ 중국 교통운수부와 재정부는 2024년 8월 1일 “신재생에너지 도시 버스 및 동력 배터리 교체 보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함. 도시 버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버스를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차량 당 평균 보조금은 6만 위안이며, 신재생에너지 버스 교체 시 8만 위안, 배터리 교체 시 4.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예정
- ✓ 하이난성은 7월 30일부터 홍콩·마카오 지역을 거쳐 입국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14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함. 이 정책에 따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하이난에 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시 전체 팀원이 함께 이동 필요
- ✓ 하이난성은 해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육성 가속화 관련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통관, 세금 환급, 자금 결제, 신용보험, 금융 서비스, 재정 지원 등 6대 분야의 지원 방안 명시
- ✓ 하이난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싼야(三亚) 야주완(崖州湾) 과학기술도시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함. 이 센터는 동식물 유전 육종, 작물 분자 설계 육종, 해양 생물 자원 개발,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연구와 응용을 지원 예정
- ✓ 최근, 산둥성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 정책은 산업 안정, 혁신 장비와 재료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고품질 주택 공급, 도시 재개발, 인프라 투자, 소비 촉진, 무역 활성화 등 추진 예정

- ✓ 산둥성은 '泉(샘플)'을 중심으로 도시 문예 관광 브랜드를 조성하고 있음. 지난(濟南)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수학여행 코스를 통해 소비 만족도와 관광 편의성 제고
- ✓ 산둥성은 2024년 말까지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을 1.1억 킬로와트로 늘릴 계획임. 현재 원자력, 해상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 중이며, 2023년 6월 말 기준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1.007억 킬로와트에 달함. 산둥성은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여 45.6%를 달성하고, 석탄 화력 발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 일본

- ✓ 일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6~38%로 높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규제 완화와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30%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큼. 농지 태양광 패널 설치와 육상 풍력 발전의 지역 동의 확보 지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저조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
- ✓ 일본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3년 산업용지 분양 가능 면적은 2005년 대비 40% 감소한 9,803헥타르로, 이는 기업의 용지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 지자체 개발, 인재 육성 및 지원금을 통해 용지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
- ✓ 홋카이도 전력은 스즈초와 풍력 발전 협정을 체결하여 스즈초에 약 2만 킬로와트의 육상 풍력 발전 활용과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검토할 예정임. 스즈초는 공공 시설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지역 신전력을 설립할 계획이며, 홋카이도 전력은 이 신전력에 출자하고 전력 판매처 개척을 지원할 예정
- ✓ 토야마현 다카오카시는 폐알루미늄을 활용한 수소 발전을 통해 탈탄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시민이 제공한 폐알루미늄을 수소 발전에 사용하고, 재생 알루미늄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다키오카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6년까지 환경 부담이 적은 발전 장치를 실용화할 예정

- ✓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섬 금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큼. 경제 파급 효과는 520억 엔으로 추산되며, 렌터카와 버스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예정
- ✓ 후쿠오카시의 투자 펀드 도간은 10억 엔 규모의 탈탄소 펀드를 설립해 큐슈의 EV 전환을 촉진할 예정임. “MGX 펀드“는 7월 23일 설립되었으며, 후쿠오카현과 협력해 투자 대상 기업을 지원함. 다이이치 교통산업, 세이코 전기 제작소, 후쿠오카 은행 등이 출자자로 참여함. 도간의 모리 다이ске 사장은 제2호 펀드 등 다양한 확장을 추구 예정
- ✓ 고베시는 의료 바이오 관련 기업 집적을 추진하는 “의료 산업 도시“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바이오 제조업과 로봇 공학 등 강점을 가진 분야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는 방침을 담고 있음. 현재 363개 기업 및 단체가 진출해 있으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
- ✓ 북북 3현이 공동으로 “가가야키 Hokuriku 여성 활약 서밋“을 개최함. 서밋에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와 “가정과의 양립“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토야마현은 각각 여성 활약 촉진, 인재 확보, 무의식적 편견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함. 후쿠이현은 기업 등록 제도를, 이시카와현은 가사 및 육아 캠페인을, 토야마현은 지역 기업 홍보 교류회 등 프로그램 중점으로 소개

## ○ ASEAN

- ✓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저렴한 중국 수입품으로부터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인도네시아는 수입 원단에 최대 200% 관세, 말레이시아는 500링깃 이하 온라인 구매에 10% 판매세, 태국은 1,500바트 이하 수입에 7%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

## ○ 필리핀

- ✓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글로벌 해양 산업 수요에 맞춰 국가 해양 부문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정부는 해양산업청과

---

고등교육위원회의 공동 각서를 통해 해양운송학사 및 해양공학사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선원 훈련 및 해양 고등교육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관광기업인 '홀리데이팩토리'가 필리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함. 저렴한 패키지를 제공해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보라카이,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아르가오 등 인기 여행지와 함께 엘니도, 코론, 보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 태국

- ✓ 태국 정부는 주요 산업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귀국 노동자 대상 개인 소득세를 약 50% 인하하는 정책을 승인함. 귀국 노동자는 5년 동안 최대 17%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 비용의 약 1.5배를 공제받게 됨. 이 정책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되며, 최소 500명의 전문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함.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의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 회복의 추진 효과 기대
- ✓ 태국은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임. 초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청정 기술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탄소세 도입이 인접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탄소세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여겨지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태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교통부는 물류 공급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신규 앱 '인터모달 컨트롤타워'를 개발 중임. 이 앱은 항공편 및 선박 일정, 예약 지원, 실시간 화물 추적 등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여 제공하며, 지연에 대한 조기 알림 시스템도 포함함. 2025년 1/4분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최대 200만 달러 절약효과 기대

---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디지털부 차관 월슨 우가크 콤봉은 AI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리더십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함. 기술 개발, AI 연구, 기업가 정신 등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인재 육성을 추진 중이며, AI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
- ✓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 앤서니 로크는 신규 국가 해운 정책을 발표하여 국내 선박 부문을 강화하고 외국 선박 의존도 감소를 추진함.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전략적 이점을 살리면서 녹색 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추가 자금도 제공할 예정임. 현재 높은 해외 의존도로 약 78억 링깃의 운송 서비스 적자가 발생 중임. 말레이시아 선주협회는 국가해운항만협의회에 대체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제안하여 2024년 말까지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

##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7월 29일~8월 2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770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01건, 경제·관광 분야 182건, 지역·사회 분야 287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제주
  
- 301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관광객, 걷기, 민원, 버스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li> <li>·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제적 영향과 주요 이슈를 논의함</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산 조개바당 축제</li> <li>· 성산 조개바당 축제 개막식과 함께 드론 1,000대가 펼치는 라이트쇼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li> <li>· 축제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li> </ul>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원탁회의 개최 - 주제는 "걷자! 제주"</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30일 제주썬호텔에서 '도민 원탁회의 - 걷자! 제주'를 개최함</li> <li>· 도민 참여단 100명이 참석하여 제주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 원인을 분석하고, 일상 속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li> <li>· 박은옥 제주대학교 교수의 '도민 걷기 실천 현황 및 정책공유' 발제와 도민 참여단의 인식조사 및 토론이 이루어짐</li> <li>· 도는 발굴된 의제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및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li> </ul>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불편 민원 감소</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전년 대비 36.1% 감소한 232건으로 집계됨</li> <li>· 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으며, 운송업체의 자정 노력과 행정처분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li> </ul>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 노선 개편</li> <li>·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되며, 58개 노선 43대 감차 및 통학과 출퇴근 시간대 맞춤형 버스가 추가 투입됨</li> <li>·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버스 시범 운영과 도심급행버스 도입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li> <li>· 변경된 시간표 부착 및 홍보 강화, 도 자체 상황실 운영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li> </ul>

- 182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여행, 수출, 일본, 관광객, 주택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운영</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객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 중임</li> <li>· 관광객의 민원 접수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여 여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li> <li>- 내손안의제주 스탬프투어 이벤트</li> <li>·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함</li> <li>· 참여 업체는 제주 주요 관광지과 음식점, 카페 등 총 68개소이며, 스탬프를 수집해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음</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상반기 수출 증가</li> <li>· 2024년 상반기 제주 수출은 90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함</li> <li>·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음료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 특히 반도체 수출은 33.8% 증가한 540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함</li> <li>· 음료 수출은 일본, 베트남, 중국을 중심으로 8.2%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음료 수출이 급증함</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와 일본 간 여행 비용 인식 차이</li> <li>·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간다'는 속설에 공감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여행비용 비교에서 일본 여행 비용이 제주 여행 비용의 2.15배에 달하지만, 소비자들은 제주 여행 비용이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함</li> <li>· 제주 여행에 대한 고비용 인식과 부정적인 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됨</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 증가</li> <li>· 7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9만 9,6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함</li> <li>· 내국인 관광객은 101만 8,018명으로 3.9% 감소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18만 1,667명으로 103.9% 증가함</li> <li>·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매월 10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음</li> </ul>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감소</li> <li>· 6월 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58호로 전월 대비 5.1% 감소함</li> <li>· 준공 후 미분양은 1414호로 전월 대비 17.6% 증가하여 전체 미분양의 55.3%를 차지함</li> <li>· 주택매매 거래량은 519건으로 전월 대비 11.4%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1,738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함</li> </ul>

○ 287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버스, 차량, 쓰레기, 폭염, 쿠팡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 노선 개편</li> <li>· 8월 1일자로 제주버스 노선이 개편됨. 주요 노선 개편으로 인해 첫날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음</li> <li>· 일부 시민들은 개편 사실을 몰라 불편을 겪었으며, 네이버 및 카카오모빌리티 등 지도 어플에 반영되지 않아 정보 확인이 어려웠음</li> <li>· 도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출·퇴근 및 등·하교 관련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임</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애월읍 차량 전복 사고</li> <li>· 7월 29일 오후 3시 12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 발생</li> <li>·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됨. 사고 원인은 차로 변경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 중임</li> </ul>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갈파래 문제</li> <li>·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섬지해수욕장에 구멍갈파래가 대거 밀려들어와 해안과 백사장을 덮음</li> <li>· 구멍갈파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김</li> <li>· 제주도와 성산읍사무소는 파래제거 지원사업을 통해 매일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입으로 역부족인 상황임</li> </ul>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 속 전력수요 최고치 경신</li> <li>· 7월 31일 제주지역 최대전력수요가 1138.8MW로 종전 최고치를 경신함</li> <li>·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li> <li>· 제주 북부지역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18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 일수를 기록함</li> </ul>
	쿠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 노동자 사고</li> <li>· 7월 18일 쿠팡 심야 배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심정지로 사망</li> <li>·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쿠팡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폭염 속 과도한 노동 강도가 원인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진상규명을 촉구</li> <li>· 쿠팡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고소함</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 중국, 새로운 드론 수출 규제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7월 31일, 중국 정부는 드론 수출 규제 조치를 최적화 및 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고정밀 관성 측정 장비를 규제 범위에 추가하고, 특정 소비자용 드론에 대한 임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li> <li>-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적외선 이미징 장비와 목표 지시용 레이저 등 일부 드론 중요 부품의 규제 기준을 조정하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용 드론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테러리즘 활동 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됨</li> <li>-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정이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민간 분야에서 드론 국제 무역과 협력을 적극적 지원하며, 민간 드론이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li> </ul> <p>※ 출처: 中国新闻网</p>
	<p>○ 산둥성, 공공 데이터 운영 제품 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7월 31일, 산둥성 최초의 버스 산업 공공 데이터 운영 제품인 “청익충(青益充)”이 칭다오에서 출시되었음. 이 제품은 칭다오 서해안 신구의 전정 버스 그룹이 개발하였으며, 버스 충전의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함. 이는 데이터 가치를 활용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li> <li>- 전정 버스 그룹의 정보 기술 총공정사 정평은 “청익충(青益充)”이 칭다오시 공공 데이터 운영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 교통 데이터</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와 제3자 사회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버스의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충전 작업을 실현함

- “청익충(青益充)”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충전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기 요금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함. 이로 인해 전기 요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전정 버스 그룹은 연간 약 160만 위안의 충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中国新闻网

### ○ 중국, 신재생에너지 버스 및 배터리 교체에 대한 보조금 제공

- 2024년 8월 1일, 중국 교통운수부와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시 버스 및 동력 배터리 교체 보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 버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도시 버스를 교체하거나 동력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보조금은 각 도시의 승객 수 변화와 도시 버스 산업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된 신재생에너지 도시 버스 차량 길이에 따라 지급됨. 차량 당 평균 보조금은 6만 위안이며, 신재생에너지 도시 버스 교체 시 차량 당 평균 8만 위안, 동력 배터리 교체 시 차량 당 4.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함
- 각 지역은 교통운수부와 재정부가 배정한 보조금과 성과 목표에 따라 지역별 보조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출처: 中国新闻网

### ○ 하이난, 144시간 외국인 입국 무비자 정책 지원

- 하이난성은 7월 30일부터 홍콩·마카오 지역 외국인 관광단의 하이난 144시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음. 이 정책에 따라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한 외국인 관광단은 2인 이상만 구성되면 하이난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하이난성 내에서만 활동하고 출국 시에도 전체 팀이 함께 나가야 함. 입국 시 팀원 명단을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제출하고, 실제 입국 인원이 2인 이상이면 됨

- 출입국 관리 당국은 하이커우, 쑤야, 보아오 등 국제 공항에 생체 정보 전처리 장비를 설치해 관광객의 통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음. 또한,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의 인증 통로를 8개에서 18개로, 빠른 통로를 6개에서 24개로 늘려 통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음
- 접대 여행사는 관광단 입국 전날 16시까지 국가이민관리국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광단 정보를 제출하면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행사 직원은 통관 시 공항 제한 구역에서 관광단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광단원들은 입출국 스탬프와 외국인 입국 카드를 생략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단축됨

※ 출처: 中国新闻网

### ○ 하이난,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육성 방안 발표

- 하이난성은 최근 7개 부서와 함께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육성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통관, 세금 환급, 자금 결제, 신용보험, 금융 서비스, 재정 지원 등 6대 방면에서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은 국내외 고객의 위탁을 받아, 법적으로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통관, 검사, 물류, 세금 환급, 결제, 신용보험 등 종합 서비스를 대행하며, 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임. 이들 기업은 강력한 수출입 전문 서비스 능력, 인터넷 기술 활용 능력, 대 데이터 분석 처리 능력 및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
- 통관 편의, 자금 결제, 신용보험, 금융 서비스, 재정 지원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통관 편의 조치로는 기업 신용 관리 제도를 통한 위험 동적 방어 체계 구축, 수출입 화물 검사율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감소, 원산지 조사 비율 감소, 통관 절차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이 포함됨. 또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외국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육성과 플랫폼 구축, 리스크 관리 강화,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됨

※ 출처: 海南日报

### ○ 하이난,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완공 및 가동

- 최근 하이난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산야 야주완 과학기술도시의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전성의 핵심 컴퓨팅 노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는 기업과 연구 기관이 동식물 유전 육종, 작물 분자 설계 육종, 열대 해양 생물 자원 개발, 동식물 검사 검역, 지구 물리 탐사, 해양 정보 기술,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임
- 하이난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주로 컴퓨팅 클러스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차폐 기지 및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장비 보조 공정 등으로 구성되며, HPC(고성능 컴퓨팅) 및 GPU 컴퓨팅력, 고성능 저장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X86, GPU 컴퓨팅 클러스터 및 국산 CPU, GPU 컴퓨팅 클러스터를 포함하며, 생명 과학, 해양 과학, 인공지능 등 분야의 응용 통합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 이 프로젝트는 중국 컴퓨터 학회 고성능 컴퓨팅 전문 위원회(CCF TGHPC)가 주관하는 전국 병렬 응용 챌린지(PAC) 2024년 국산 고성능 컴퓨팅 대회를 즉시 수락하여 주관하게 됨. 산야 야주완 과학기술도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 컴퓨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반구 육종, 심해 연구, 생명 과학 등 과학 연구 컴퓨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의 높은 수준의 응용을 통해 전성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의 고품질 협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海南日报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 산둥성, 경제 성장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발표

- 산둥성은 최근 경제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 산업 분야에서는 '일업일책'으로 주요 산업을 안정시키고, '삼수 보험 보상'을 통해 혁신적인 장비와 재료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십연백군만기'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임. 서비스 업계에서도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품질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택 공제금 제도를 최적화하는 정책을 제시했음. 또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이와 함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침임
- 소비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장비 교체와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중요한 쇼핑 시즌과 이벤트를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할 예정임. 무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호품산둥' 브랜드를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주요 무역 전시회와 도킹 이벤트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산둥성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山东省人民政府网

### ○ 산둥성,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 조성

- 산둥성은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풍부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지난은 '泉(샘물)'을 중심으로 여름철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임. 주제별로 100개의 연구 여행 코스와 1,000개의 연구 여행 이야기를 준비했으며, 샘물 테마 활동과 문화 작품을 제작하고, 독서 테마 활동을 통해 다양한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를 통해 소비 만족, 서비스 편안함, 관광 편의성, 질서 안전, 교통 원활, 환경 친화 등을 보장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임

- 올해 초, 지난시 정부는 '泉(샘물)'을 주제로 한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 조성을 위한 중요 결정을 내렸음. 이를 위해 문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고품질의 도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음. 대표적으로 '泉'이 있는 지난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의 주요 관광지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음
- 지난의 문화관광 브랜드 성공 비결은 도시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데 있음. 오래된 도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음. 이와 함께, 도서관 및 독서 환경 개선, 샘물 직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있음

※ 출처: 大众日报

### ○ 산둥성, 2024년 말까지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 1.1억 킬로와트 달성 목표

- 산둥성은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 산둥성 정부는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와 조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화석 에너지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24년 말까지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을 1.1억 킬로와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산둥성은 원자력, 해상 풍력, 태양광 및 저장, 전력 송배전 통합 등 대규모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 중임. 2023년 6월 말 기준, 산둥성의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1.007억 킬로와트로, 이는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1억 킬로와트를 돌파한 사례임. 청정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45.6%에 달하며, 연말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산동성은 세계 에너지 기술의 최전선을 목표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있음. 지난 3년간 187개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새로운 기술, 제품, 장비 추천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38개는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음. 또한, 분산형 태양광, 신형 에너지 저장, 충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혁신하고, 지역적으로 소비와 통합 이용 수준을 높이고 있음

※ 출처: 中国新闻网

## 일본

### ○ 일본,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 어려움

- 일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 상태로는 2030년도에 36~38%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규제 완화와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서, 추가 대책이 없으면 전력 구성의 30%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기본 정책 분과회에서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 도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음. 특히 농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육상 풍력 발전의 지역 동의 확보가 지연되고 있음. 기존 태양광 발전 방식이 비판을 받아 농지로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전체 태양광 발전 도입량은 목표의 6~7할 수준임
-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태양광 패널 설치의 공공 시설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육상 풍력 발전은 목표의 3할에 불과함. 정부는 향후 추가 대책을 통해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 산업용지 부족, 반도체 유치에 불안

- 일본에서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2023년 산업용지 분양 가능 면적은 9803헥타르로, 2005년 대비 40% 감소했음.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국내 유치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경제산업성은 기존 용지의 활용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개발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지자체의 62%가 기업의 용지 확보 문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실제로 용지를 확보한 기업은 9%에 불과했음. 이는 국내 회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적절한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특히,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보다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용지 개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자체에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기업의 용지 수요 동향을 조사하고, 주요 도로 접근성 및 공업용수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용지 후보지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출처: 日本經濟新聞

### ○ 풍력 발전으로 산업 진흥, 복전, 스텝초와 협력

- 홋카이도 전력은 7월 29일 삿포로시에서 홋카이도 스텝초와 풍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협정을 체결했음. 스텝초에 위치한 약 2만 킬로와트의 육상 풍력 발전 활용 및 새로운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임
- 스텝초에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의 매입 기간이 끝난 “졸FIT” 단계의 육상 풍력 발전이 존재함. 스텝초는 이 전력을 공공 시설 및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지역 신전력을 설립할 계획임. 복전은 이 지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역 신전력에 출자하고, 전력의 판매처 개척 등에서 협력할 것임

- 스즈초를 포함한 홋카이도 이와우·남고시 지구 해역은 부유식 해상 풍력의 “준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이토 사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전 설비의 감시와 유지 보수 시기 판정 등에서 협력하고, 부유식 해상 풍력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토야마현 다카오카시, 알루미늄 쓰레기로 수소 발전

- 알루미늄의 도시인 토야마현 다카오카시는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해 탈탄소에 도전하고 있음. 시민이 가져온 폐알루미늄을 수소 발전에 활용하고, 제조에 필요한 전기가 적게 드는 재생 알루미늄의 연구와 활용에 힘쓰고 있음. 이 도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성의 “탈탄소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다카오카시 중심 상점가에는 8월 중순에 독특한 회수 박스가 설치될 예정임. 이 박스는 알루미늄 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과 약품 포장재 등 폐알루미늄을 수집할 것임. 회수된 폐알루미늄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녹여서 수소를 발생시켜 발전하는 환경 부담이 적은 장치를 2026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임
- 다카오카시는 알루미늄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탈탄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토야마 대학과 협력하여 폐알루미늄에서 고순도 재생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재생 알루미늄은 새로운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 필요한 전기의 3%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음.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루미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다시 빛날 수 있을까, 황금의 섬 사도 관광의 미래

-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섬 금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 경제 파급 효과는 520억 엔으로 추산되며,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큼. 1991년을 정점으로 축소된 사도 관광은 수용 체계와 환경 정비 면에서 많은 과제가 있음. 세계 유산 등록을 계기로 새로운 사도 관광의 미래상이 요구됨
- 사도로 향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사도 기선의 오와타 히데오 사장은 “등록으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음. 그는 “여름철에 렌터카를 80대 늘려 190대 체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차 교통의 핵심인 버스를 운행하는 니가타 교통 사도는 “장기적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했음
- 경제계는 세계 유산 등록을 계기로 사도에 새로운 교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함. 일본정책투자은행 니가타 지점은 등록 후 1년간 경제 파급 효과를 약 520억 엔으로, 사도시의 세수 효과를 약 8억 엔으로 추산함.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가 중요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다시 빛날 수 있을까, 황금의 섬 사도의 리브랜딩

- 사도의 관광객은 40~5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젊은 층을 유치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됨. 젊은 층의 접근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사도에서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사도를 리브랜딩하여 관광의 젊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
- 3월 10일에 개최된 “사도 케시마 페스 2024“는 유튜버 케에 씨의 주도로 개최되었음. 그의 유튜브 채널은 사도 주민 수를 초과하는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음. 그의 활동은 사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젊은 층에게 사도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사도의 북서부 지역에는 새로운 캠프장이 개장했음. 이 캠프장은 절경을 자랑하며, 사우나와 클램핑 시설을 갖추어 가족과 친구 단위의 숙박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음. 캠프장 매니저로 활동하는 후지와라 씨는 사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사도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10억 엔 탈탄소 펀드, 후쿠오카의 도간과 현 협력

- 후쿠오카시의 투자 펀드 도간은 7월 30일, 큐슈의 탈탄소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펀드 규모는 10억 엔 이상이며, 존속 기간은 10년임. 후쿠오카현도 도간과 협력 협정을 체결해 투자 대상 기업 소개 등 지원에 나설 예정임. 이는 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EV) 전환 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음
- “MGX 펀드”는 7월 23일 설립되었음. MGX는 “모빌리티-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큐슈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음. 투자 대상은 탈탄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큐슈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도 포함할 예정임
- 펀드에는 지역 기업인 다이이치 교통산업과 세이코 전기 제작소 외에도 후쿠오카 은행, 니시니혼 시티 은행, 기타큐슈 은행 등도 출자자로 참여함. 도간의 모리 다이스케 사장은 “존속 기간 1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호 펀드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고베, 의료 산업 도시의 미래 보고서 발표

- 고베시는 7월 31일, 의료 바이오 관련 기업 집적을 추진하는 “의료 산업 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향후 10~20년을 내다보며, “바이오 제조업”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더욱 심화하고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는 방침을 담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고베시립 의료센터, 시스메디스, 이화학 연구소, 고베 대학 등과 함께 작성되었음

- 보고서는 “연구 및 개발 시드의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미생물이나 세포를 이용해 소재를 생산하는 바이오 제조업과 로봇 공학 등 성장 시장으로 꼽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임. 이러한 산업화 촉진은 고베 의료 산업 도시가 오랫동안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이번 보고서는 이를 주요 과제로 다시 강조하고 있음
- 고베시의 의료 산업 도시는 1998년에 시작되어 현재 363개의 기업 및 단체가 진출해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1월의 최고치 382개에서 5% 감소한 상황임.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고베 대학 캐피탈과 캐나다 벤처 캐피탈의 고베 진출 등 새로운 기회도 보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 북륙 3현, 여성 활약 서밋 개최

- 북륙 3현이 공동으로 “가가야키 Hokuriku 여성 활약 서밋”을 개최했음. 서밋에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와 “가정과의 양립”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7월 17일, 후쿠이시의 후쿠이현 국제 교류 회관에서 열린 이 서밋에는 많은 여성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가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포함하여 총 300명이 참여했음
- 북륙 지역은 여성의 M자 커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그러나 여성의 관리직 비율은 여전히 낮음. 후쿠이현은 여성 활약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등록 제도를 소개하며,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등록 기업 수는 2023년도 말 기준 432개에 이르렀음. 이시카와현은 다양한 인재 활용이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토야마현은 인재 확보를 중시하며, 중고생에게 지역 기업을 알리는 교류회를 개최했음. 가정과의 양립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시카와현이 남성 대상의 가사 및 육아 영상 캠페인을 소개했음. 토야마현은 무의식적인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음. 후쿠이현은 “공동 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사 아웃소싱을 촉진하는 노력을 소개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ASEAN**

○ 동남아시아, 중국 수입품으로부터 현지 산업 보호 추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저렴한 중국 수입품으로부터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함. 인도네시아는 수입 원단에 최대 200% 관세를 검토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500링깃 이하 온라인 구매에 10% 판매세를 부과함. 태국은 1,500바트 이하 수입에 7% 부가가치세를 적용함
- 저렴한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일자리 손실과 공장 폐쇄가 발생함. 인도네시아는 2024년 섬유, 의류, 신발 부문에서 약 4만 9,000명의 일자리를 잃음. 태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 부문도 큰 타격을 입음
- 동남아시아 각국은 첨단 기술 부문에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현지 산업을 보호하려고 함. 태국은 중국 기업의 현지 생산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출처: NIKKEI Asia, Yahoo News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대통령, 해양 부문 교육 강화 추진**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글로벌 해양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해양 부문 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힘. 이 내용은 필리핀 대통령실 해양안보 담당관을 통해 발표됨
- 정부는 해양산업청과 고등교육위원회의 공동 각서를 통해 해양운송학사 및 해양공학사 프로그램을 개정함. 개정된 프로그램에는 선원 훈련 및 해양 고등교육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포함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10개년 해양산업발전계획 2028을 채택 하는 행정명령 55호를 발령함. MIDP 2028은 해양 인력의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고용성 향상,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함

※ 출처: The Manila Times, ABS-CBN News

○ **필리핀, 동남아 최초 UAE 관광기업 서비스 출범**

-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표적인 관광 기업인 '홀리데이팩토리 (Holiday Factory)'가 필리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최초로 진출함
- 홀리데이팩토리는 귀국 항공편, 호텔 숙박, 공항 환승, 투어 가이드,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한 저렴한 패키지를 제공함. 인기 있는 현지 여행지로는 보라카이,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아르가오 등이 있음
- 홀리데이팩토리는 여행 패키지를 엘니도, 코론, 보홀 등으로 확대 할 계획임. 필리핀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저렴한 여행 패키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홀리데이팩토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처: Inquirer, Bondiwithlove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태국

### ○ 태국, 세금 감면으로 인재유출 방지 추진

- 태국 정부는 주요 산업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귀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율을 약 50%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함. 이 정책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귀국 노동자들은 5년 동안 최대 17%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신규 정책에 따르면 귀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비용의 약 1.5배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됨. 귀국 노동자는 해외 근무 경력 2년 이상,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정부는 이 정책 시행을 통해 최소 500명의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정책은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내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총리의 경제 회복 전략의 일환임

※ 출처: Bangkok Post, Bloomberg

### ○ 태국, 탄소세 도입 발표

- 태국은 2025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 계획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을 시사함
- 도입 초기에는 국내 및 지역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탄소세는 장기적으로 청정 기술 채택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탄소세 도입이 인접국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탄소세 도입은 동남아시아의 홍수, 폭풍, 폭염, 화재 등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짐. 하지만 태국이 에너지 믹스의 약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세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출처: Channel News Asia(CNA), Business Today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 **싱가포르, 신규 물류 앱 개발 추진**

- 치홍 닷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은 7월 30일, 해운 및 물류 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신규 앱 개발을 발표함. '인터모달 컨트롤타워'로 설명되는 이 앱은 물류 공급자가 화물 경로를 계획하고 비상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신규 앱은 항공편 및 선박 일정, 예약 지원, 실시간 화물 추적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관리 및 의사결정 방식을 중앙 집중화할 예정임. 특히, 지연에 대한 조기 알림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됨
- 이 시스템은 2025년 1/4분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최대 2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닷 장관은 시스템 시행을 통해 소요 시간이 줄어 환적 물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출처: The Straits Times, Magzter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글로벌 AI 강국 목표**

- 월슨 우가크 콤봉 말레이시아 디지털부차관은 AI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글로벌 리더십 부문에 집중해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 내용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생성형 AI를 통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명' 회의에서 발표됨
- 말레이시아는 기술 개발, AI 연구 개발, 기업가 정신 등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통신망에 연결된 AI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대해 약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함
- 말레이시아는 AI 공급망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맥킨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AI를 통해 약 1.2%의 추가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출처: Bernama, EuroCHAM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 말레이시아, 신규 해운 정책 발표

- 앤서니 로크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신규 국가 해운 정책 도입을 발표함. 신규 정책은 국내 선박 부문을 강화하여 외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에 위치하여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2024년 1/4분기 기준 약 78억 링깃의 운송 서비스 적자가 발생함. 말레이시아 해운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해운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말레이시아 선주협회는 국가해운항만협의회에 대체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제안했으며, 2024년 말까지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제안에는 석유, 팜유, 석탄 등의 화물 교역 경로와 공급 라인을 유지하고, 말레이시아 자체 선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됨

※ 출처: Bernama, Ships Monthly